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News Letter

## 일본 육상자위대 V-22B 오스프리 도입과 과제



Bell Boeing V-22B Tiltrotor Osprey, USA

사진 :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V-22\\_mcas\\_Miramar\\_2014.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V-22_mcas_Miramar_2014.JPG)

지난 5월 8일 일본 육상자위대(JGSDF)는 미국 벨보잉(Bell Boeing)사로 부터 V-22B 틸트로터(tiltrotor) 오스프리(Osprey) 항공기 2대를 인수받아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 이와쿠니 육상자위대 항공기지에 배치하였다.

2015년 5월 일본 육상자위대는 17대의 V-22B 오스프리 항공기를 해외군사판매(FMS)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동맹국에게 최초로 판매를 결정한 사례였다.

당시 중국 해군과 해경 함정들이 동중국해 센카쿠(중국어명: 釣魚臺) 근해에 자주 나타나 해양영유권을 주장하던 시기였으며, 이에 대비하여 2018년 4월 7일에 사세보에 일본 해병대인 '수륙기동여단(水陸機動團: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을 창설하면서 공중이동 수단으로 V-22B 오스프리 항공기 5대를 3억3천2백만 달러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이번에 2대가 인도되었다.

하지만 2018년 말 일본 육상자위대는 V-22B 오스프리 항공기 인도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잠시 보류하였다.

우선 V-22B 오스프리 항공기 추락 사고였다. 1989년 3월 19일 처녀비행 이후 총 18회의 크고 작은 추락 사고가 있었으며, 특히 일본 육상자위대가 V-22B 오스프리 항공기 도입 결정 이후인 2017년 8월 호주 동부 연안에서 미 해병대의 V-22B 오스프리 항공기 추락하여 전원 사망자라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일본 주민의 반대였다. 2012년 7월 미 해병대가 V-22B 오스프리 항공기를 오키나와에 배치한 이후에 수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오키나와 주민들이 항공기 전개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어 일본 육상자위대가 이와쿠니 기지에 항공기를 배치하려 하자 이와쿠니 주민의 반대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오키나와 미 해병대 제3원정단에 V-22B 오스프리 항공기 운용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지 확보 어려움이었다. 2017년 일본 육상자위대가 V-22B 오스프리 항공기를 배치할 기지로 치바현 사가 항공기지를 결정하여 항공기 활주로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대하여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으며, 2019년 5월 일본 육상자위대가 사가 항공기지와 인접한 키사라주 항공기지를 대체 기지로 정하고 설비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2대를 배치하였다.

미 해병대용 V-22B 오스프리 항공기는 CH-46 Sea Knight 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1989년부터 개발되었으며, 2007년 6월 13일에 초기작전능력을 통과하여 실전에 배치되었으나, 개발비용이 초기 예상치 보다 2배이고, 시간 당 운용비용이 CH-46 Sea Knight 헬기보다 약 4배이며, 장비 및 보수 절차가 CH-46 Sea Knight 헬기보다 복잡하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V-22B 오스프리) 항공기는 CH-46 Sea Knight 회전익 헬기와 C-130 Hercules 고정익 항공기를 복합시켜 야전에서의 이착륙이 가능하며 기동성을 우수하고, 탑재 무장 및 병력 규모가 CH-46 Sea Knight 헬기보다 우수하며, 공중급유 기능을 갖추었고 항모와 대형 강습상륙함에 탑재할 수 있어 미 해병대의 공지기동원정작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2012년 미 해병대는 V-22B 오스프리 항공기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하였으며, 2013년 6월에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구축함인 휴가함(JS Hyuga)에, 2014년 1월에 프랑스 해군 상륙함 미스트랄함(Mistral)에, 2015년 3월에 한국 해군 독도함(ROKS Dokdo)에 이·착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국적 연합상륙 능력을 보였다.

향후 일본 육상자위대는 V-22B 오스프리 항공기를 약 2,000-3,000명 수준의 수륙기동여단에 배치하여 동중국해 센카쿠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Defense News, May 8, 2020; Flight Global, May 9, 2020; Sputnik News, May 11, 2020; Naval News, May 11, 2020; USNI News, May 12, 2020.

저작권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www.kima.re.kr)